



# SOGANG ECONOMICS

NEWSLETTER

Spring 2023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발행인: 박정수 | 편집인: 이성원 | 편집진:곽효진(총괄), 김동혁(행정팀), 김지영 | <http://econ.sogang.ac.kr>

FOCUS NEWS

## 경제대학 김윤정 교수, 제53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 김윤정 교수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출처 : 매일경제 〉

경제대학 김윤정 교수가 2023년 4월 10일에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매년 가장 우수한 업적을 보인 경제·경영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윤정 교수는 국제 경제학 분야의 최고 저널 중 하나인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에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rivate versus public flows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민간·정부 부문의 자본 유출입 패턴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액 활용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김윤정 교수는 수상 소감으로 “오랜 기간 노력을 쏟은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연구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서강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 안승찬, 염민철 동문 2023년 재미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 안승찬 동문(왼쪽부터 5번째), 염민철 동문(왼쪽부터 6번째), 출처 : 매일경제 〉

안승찬 동문(경제 80, 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은 한미경제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선정한 2023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촉망받는 신예 부문에서 염민철 동문(경제 01, University of Southampton 교수)이 수상하였다. 본 수상은 매일경제와 한미경제학회의 주관으로 매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룬 재외 경제학자에게 부여되는 상으로 2006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인 안승찬 동문은 미시간주립대에서 199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승찬 동문의 주 연구 분야는 패널 데이터 분석, 경험적 자산 가격 모델이다. 특히, 계량경제학 분야의 최고 저널 중 하나인 Journal of Econometrics에 게재된 “Efficient estimation of models for dynamic panel data” 논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1,431회 인용이 되었고, Econometrica, Journal of Econometrics 등 경제학 분야 우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 이코노미스트상 (Young Economist) 을 받은 염민철 동문은 2015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염민철 동문의 주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변동, 소득 불평등, 가족 경제이다. 염민철 동문은 “Parental time investment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의 논문을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에 게재하였고, 그 외에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등의 우수한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023년도 상반기 정책세미나 ‘통화정책 평가와 과제’ 개최



지난 5월 17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주관 및 서강경제포럼의 후원으로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정책세미나는 ‘통화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 고물가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

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도영(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 학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철순(서강경제포럼)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박양수(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의 ‘최근 통화정책 관련 이슈’,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전달경로 변화’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곽노선(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의 사회를 바탕으로 이윤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백인석(자본시장연구원 거시 금융실) 실장, 유혜미(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곽준희(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가 참석하였다.

## 경제학과 김슬기 박사(지도교수 김영철) 우수논문상 수상



〈 김슬기 박사(당시 박사과정생, 앞줄 오른쪽 세 번째) 〉

1월 12일(목) 오전 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종혁 총장, 전성훈 대학원장, 성봉준 대학원 부원장과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상자 12명이 참석하였다.

본 시상식은 대학원혁신센터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의욕 고취, 학문적 역량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앞서 대학원혁신센터는 학위청구논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지 투고건 중 심사단계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78건의 논문을 접수하였다. 이후 인문·사회, 경제·경영, 이학·공학, 외국인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12명의 심사위원단이 2회에 걸쳐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석사 3명, 박사 13명 등 총 16명의 대학원생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1백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김슬기 박사는 “Mental health outcomes of single-sex schooling: Are girls mentally healthier without boys around?”의 주제로 수상하였다.

## 경제학과 곽효진(지도교수 허정), 이상진(지도교수 양현주) 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상 선정



〈 곽효진 박사과정생, 허정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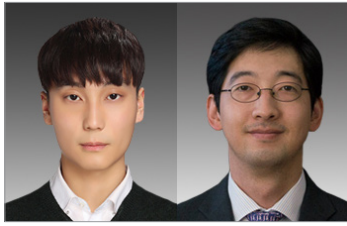


〈 이상진 박사과정생, 양현주 교수 〉

본교에서 운영하는 2023학년도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박사과정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곽효진 박사과정생(지도교수 허정)과 이상진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양현주)가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중심대학원육성 지원사업’은 대학원 연구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곽효진 학생과

이상진 학생은 각각 2023년 3월부터 1년간 연구 인건비와 학술활동 지원비로 총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곽효진 학생의 연구주제는 “이커머스 도입 증가로 인한 경쟁과 제품혁신”이고, 이상진 학생의 연구주제는 “소셜믹스 정책의 파급효과: 한국의 분양·임대혼합 단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이다.

## 경제학과 송정길 석사과정생,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 세션 우수상 수상



〈송정길 석사과정생, 양현주 교수〉

경제학과 송정길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양현주)이 지난 2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 세션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위 공동학술대회에는 58개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약 1,5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4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학원 세션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생이 참여하였고, 총 20편의 논문이 경쟁을 벌였다. 이에 총 5명의 경제학 전공 교수진의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생인 송정길 학생의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받게 되었다.

송정길 학생은 논문 “Predicting the consumption level changes using street view images: An application in natural disasters”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각 가구의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방법론이 저개발국과 같이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송정길 석사과정생은 “양현주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학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빈민국의 데이터 부족 문제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안경순 여사(故 김영훈 (경제 87), 故 김영민 (경제 95)의 모친), 경제대학에 발전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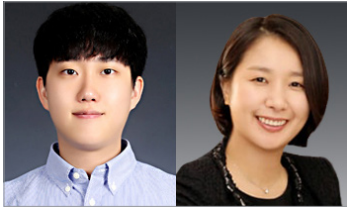


본교는 2월 9일(목), 총장 접견실에서 안경순 여사(故 김영훈 (경제 87)과 故 김영민 (경제 95)의 모친)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의 故 김영훈, 故 김영민 등문의 모친 안경순 여사는 두 아들의 추억이 담긴 본교에 7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심종혁 총장과 송태경 대외부총장, 전성훈 교학부총장, 정옥현 대외교류처장, 김상용 교목처장, 박정수 경제대학장이 참석해 가족의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경순 여사는 “아들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가톨릭 신자라 늘 서강에 애착이 있었다. 장학금과 교육 시설 개선을 통해 후배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두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바라며, 학교 운영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뜻을 전했다. 기부금은 가족의 뜻에 따라 경제대학 발전기금과 지덕체 융합관 건립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학과 출신인 두 자녀를 예우하고 기부의 의미를 기리고자 경제대학 내 ‘김영훈-김영민 기금’을 설립하여 후학들의 장학사업, 연구 및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경제학과 주하연 교수, 이상원 박사과정생 한국산업조직학회 춘당 논문상 수상



〈 이상원 박사과정생, 주하연 교수 〉

경제학과 이상원 박사과정생과 주하연 교수가 함께 쓴 논문이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주관하는 춘당 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 제목은 “영업 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 분석: 소매 업태별·세대별 소비액 변화를 중심으로”이다. 본 논문은 영업 규제 정책의

장기 효과를 확인하고, 해당 효과의 세대별 이질성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의 전망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가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춘당 논문상은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춘당 정병휴 교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발간하는 산업조직연구(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독창성, 학문적 정치성 및 학문적 공헌도를 기준으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2023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총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두 편의 논문이 공동 수상하였다.

## 경제학과 박희진(경제 19), ‘누네피네’ 팀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최우수상(1위) 수상



〈 (왼쪽부터) 박희진(경제 19), 방미정(경영 18), 심규환(컴공 19) 〉

지난 4월 26일, 강서구청이 주최한 ‘2023년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본교 ‘누네피네’ 팀(박희진(경제 19), 방미정(경영 18), 심규환(컴공 19))이 부문 1위에 올라 최우수상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202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 불편 해결 및 공공 이익·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빅데이터 공모전이다.

이번 대회 1위를 차지한 ‘누네피네’ 팀은 본교 경영데이터 분석학회 INSIGHT 소속 팀으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강서구 소상공인 폐업 위험 평점화 모형 및 위험 등급 산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우수한 성취를 거두었다. ‘누네피네’ 팀의 팀원인 박희진(경제 19) 학생은 “이번 강서구 데이터 공모전을 참여하며 학회와 인턴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폐업 위험 5등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고객의 신용 등급을 측정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모델 중 하나인 신용평가모형을 응용하여 가능했다. 서강대 경영데이터 분석학회 INSIGHT의 여러 기수(6, 7, 8기) 간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 신임교원 인터뷰 : 곽준희 교수



〈 곽준희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학기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곽준희입니다. 저는 2013

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하고자 2016년 가을에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경제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서강대학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훌륭한 교수님들 및 학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서강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였을 때는 작지만 참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라면 차분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 경험이 있었고 수업에서 학생들과 좋은 기억을 만들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서강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 학생 여러분들이 특히나 똑똑하고 열정이 넘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수업시간에서 본 여러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강경제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 연구 분야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국제금융 및 거시경제입니다. 박사과정 중에는 기업의 건전성이 국가의 차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기업 단위의 미시적 데이터에서 얻은 경험적 결과를 거시모형에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축한 새로운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부도 사태와 같은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 정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겠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입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최적 조합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계획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시경제변수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한편 추정된 인과관계를 정보로 활용하는 동태적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위기 전후의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연구합니다.

###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거시경제학 1과 국제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1에서는 미시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 거시모형을 공부하고 이러한 거시모형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공부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국제 경제학에서는 초반부에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설명하는 국제무역이론을 배우고, 후반부에는 환율, 자본 유출입 등 국제 거시경제변수의 결정요인에 관해 공부하는 국제금융론을 다룹니다. 앞으로는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과 관련된 학부 수준의 각론 과목과 함께 학부 고학년 혹은 대학원생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거시모형 구축을 위한 최신 Computation 방법론에 대한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대학생 시절 초반에는 저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종종 겪는 일인데 주위에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저는 무의미해 보이는 학점 경쟁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이 다 한다는 고시도 웬지 하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매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노는 것이 즐겁긴 하였지만, 다행히 이러한 삶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고 종종 근처에 있었던 교보문고에 가서 혼자 이런저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입학할 인문대학으로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겹멋

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였지만 나름대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과로 전공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 삶의 의미에 대해 정답을 찾지는 못했고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철학과 전공과목들을 들으면서 지적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의 매력은 수학, 통계학 등을 활용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철학과 학생일 때 그래도 나름 지적인 도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느끼는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다만, 철학의 질문은 보통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많아서 제 지적 능력으로 풀기에는 한계인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경제학도 쉬운 학문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이 비교적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군대를 다녀와서 3학년이 되어야 경제학과로 전과를 하고 경제원론부터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찾은 길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이야말로 저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면서도 경제정책을 매개로 직접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이 저를 경제학자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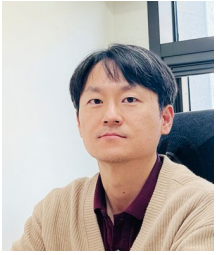
###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과 졸업생에게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전문적인 경제학적 지식도 있겠지만 경제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에서 다양한 지식을 열거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정립되어 온 경제이론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경제학자의 사고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진도를 조금 덜 나가더라도 학생들이 저와 함께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다면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체력을 더 많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에서는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계속 공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과는 경제학적 사고 훈련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로의 전문지식 전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관련 학과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유망직종을 조사하고 이들 직종을 고려사항에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외에도 재정적 측면 등 학생 여러분들 각각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먼저 자신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종이 나의 다양한 욕구 중 어느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강대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서 종종 관찰하였던 것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체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그리고 어느 분야를 가시더라도 열정이 있는 서강대 경제학과 학생들이라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선택을 너무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너무나도 젊기에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로를 수정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신임교원 인터뷰 : 김인경 교수



〈 김인경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경이고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서강대학교 경제학

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2008년까지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2014년까지 공부하였고, 2021년까지 약 7년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지냈습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 캠퍼스가 크기는 작지만, 매우 아름답고 건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배치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이 모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서강대학교와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산업조직론이고 실증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국가 간 정치, 외교적 갈등과 같은 경제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소비패턴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결과 산업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산업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시경제학 (학부) 및 산업조직론 세미나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과목들을 맡을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학교와 집이 멀어서 하루에 세 시간을 통학하는데 쓰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 2학년 때는 서양

사학을 전공하다가 3학년 때 경제학으로 전과를 하였는데, 그래서 두 학과 사람들과 지금까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던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복수전공할 생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재미있어서 아예 학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부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경제학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다니다 보니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것은 논리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뭘 빨리 이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밖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임교원 인터뷰 : 김재호 교수



( 김재호 교수 )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 1학기에 신규 부임한 김재호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모든 구성원들에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8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부를 졸업하고 201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7년 동안 University of Oklahoma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6개월간 재직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에 부임하기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부교수로 1년간 근무를 하였고, 이번 학기 좋은 기회로 서강대학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 기간 서강대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로부터 학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배움에 대한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태도가 참 좋게 느껴졌고, 교육자로서 양질의 지식을 더 잘 전달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베이지안 (Bayesian) 계량경제학과 응용 시계열 분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국의 경제기관들은 최근 10년간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100개 이상의 거시/금융 변수들을 담고 있는 대형 모형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모형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가용한 데이터에 비해 추정해야 할 모델 파라미터 (model parameters) 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병목점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도구가 바로 베이지안 방법론입니다. 베이지안 방법론은 모형을 추정할 때 데이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문헌에서는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사전 분포(prior)를 활용하여 대규모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쓰이는 대규모

공분산 행렬의 추정과 그리고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쓰이는 벡터 자기 상관 (VAR) 모형의 추정에 존재하는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를 베이지안 방법론을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에 베이지안 방법론을 접목하여 자산 가격 예측과 분석, 또한 대규모 거시경제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계량분석이라는 학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거시/금융에서 널리 쓰이는 시계열 분석 방법들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방법론들은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경제연구소 등 같은 정책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 학생들에게도 향후 논문을 작성할 시 이러한 방법론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대학원에서 시계열 계량경제학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시계열 이론과 데이터 적용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의 특성상, 최근 개발된 시계열 분석 방법론들, 특히 수많은 변수를 담고 있는 대규모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 베이지안 방법론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대학을 처음 입학하여 경제원론을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경제학에 푹 빠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가끔 맥주를 한잔하는 것이 그때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던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경제학과 대학생들이 나와서 경제학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

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막연한 이야기였지만 제가 경제학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자면 제 군대 시절까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당시 만나던 이성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실감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군요. 인생에 있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군 복무 동안 많은 시간을 고민한 후 내린 저의 결론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의 가치는 변화하지 않고 쌓이면 쌓일수록 나 자신을 한없이 빛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군 복무 이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학업과 연구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을 하며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직관, 바로 intuition입니다.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는 다르게 수학과 통계가 많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경제학적 함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도구들에 매몰되어 정작 핵심적인 경제학적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의 어떠한 분야이든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수학과 통계 없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뼈대가 잘

정립된 후에 수학과 통계가 부차적으로 살을 붙여 주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대학에서 배운 것을 가볍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직관을 주기 위한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경험, 성격, 그리고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경험상으로 보아, 경제학에는 학생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현재 인기가 없는 경제학 분야도 괜찮습니다. 그럼 해당 분야에 전공자가 많이 없어 권위자 혹은 능력 있는 실무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되어 미래에 수많은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분야여도 괜찮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공자들이 많아도, 어딘가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



(원정경 학생)

안녕하세요! 올해 감사하게도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원정경입니다. 이제 겨우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뜻나기에 불과한데, 여러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보시는 곳에 글을 남기자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선배들의 합격 후기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듯, 저도 누군가에게 (특히 경제학 유학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들)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인 소견을 남깁니다. 또한, 저는 미시 실증 분야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분야가 이론에 가까울수록 저랑 준비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 박사유학은 굉장히 적성을 많이 타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의 초점이 기존의 지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구를 통해 이를 경험하는 것이 적성을 판단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학 박사 후 통상 밟게 되는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구 경험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혼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장벽이 높으니, 본인 관심 분야를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의 RA로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졸업 연도 여름방학부터 양현주 교수님의 RA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열심히 했던 경험을 통해 제 나름대로 적성을 판단하고 실증 연구에 필요한 역량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유학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현실적인 준비 기간(2~3년)을 잡고 그동안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에 보낼 시그널을 기다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몇 년간의 노력은 결국 몇 장의 서류들로 압축되어 평가됩니다. 그리고 입학 심사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보낸 산티미 같은 지원서들 속에서 뽑고 싶은 학생들을 추려내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잠재적인 경제학 연구자로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1년 정도는 정량요건(경제학 및 수학 성적, 영어성적)을 발목 잡지 않을 정도로만 맞추는 데 집중하였고, 남은

2년 동안은 정성 요건(추천서, 개인 또는 공동 연구, 학회 발표 등)을 갖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서류에 담긴 나에 대한 많은 정보(특히 정성요건)들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엮으려 하였고, 그와 동시에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최선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유학 준비자의 목적함수라면, 이는 본인이 학업을 진행하는 모든 환경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제약은 “시간은 짧고, 할 것은 많고, 경제학은 너무나도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석사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실증연구의 모든 측면(주제, 데이터, 이론 및 계량 분석 등)에서 인상 깊은 역량을 보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하기 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두 가지(이는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를 잘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생이 교수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최신 데이터 역량이라 판단하여, 기계학습과 GIS를 결합하여 경제학자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데이터를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데이터가 새롭다 보니 이를 활용한 연구 질문도 새롭게 짤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운도 따라서 나름 흥미로운 결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절차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학교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본인이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뜻대로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였고, 제 관심 분야를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어딜 가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과에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니, 지도교수님과 최선을 다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던 학부 때부터 열심히 하는 태도를 높게 사주시고,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통해 좋은 열매까지 맺게 해 주신 양현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I



(홍성인 학생)

안녕하세요, 이번 23년도 가을에 버지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에 경제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경제학과 석사과정 홍성인입니다. 앞서 유학을 나가신 선배님들께서 경제학과 뉴스레터에 남겨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 덕에 경제학 유학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후배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번 유학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학을 나가는 것에는 오직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 경험 또한 반드시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재학 시절부터 유학을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같이 유학을 목표로 한 동기들이나 선후배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저만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량적인 수치가 정말 좋은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경제학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친구들, 선후배님들 사이에서 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했고, 그 당시 내린 결론은 관심이 가는 분야들의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여 전공을 일찍 정한 후, 중장기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의미한 연구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부 3학년이던 2018년 가을 학기부터 허정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국제무역으로 전공을 정한 후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석사과정 기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 후반부부터 석사과정 기간까지 4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논문과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교수님과 미팅을 하면서 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궁극적으로 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지도교수님이신 허정 교수님, University of Hawaii에 계신 최재림 교수님, UC Davis의 강만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매 미팅 결과를 보고할 때, 제 설명에서 논리적으로 연구 흐름에 맞

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은 당연하게도 긴장이 되는 부분이었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선배 연구자로서 주시는 피드백은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저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미팅에는 발전된 결과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미팅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고 지난해 가을 약 2년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working paper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특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유학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하고 어려웠던 부분은 학업 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진과 제가 하고자 하는 국제무역 분야의 학교별 방향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충실하게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일관된 스토리를 작성하여 어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국제무역 분야에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working paper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 후 하고 싶은 공부, 연구의 내용을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적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한 것 이외에 유학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멘탈 관리입니다.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정량적인 수치를 되돌아보면서 과거 자신의 게으름에 후회하기도 하고, CV 또는 학업 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과연 충분할까 라는 생각에 계속 수정하고 문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 정도 학교 지원에 정신을 빼앗기고, 시시각각 발표되는 결과에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도 듭니다. 매 순간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충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 유학 준비 및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 시간 정도 뛰어서 몸을 지치게 만들어 고민을 지우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하다고 해서 마냥 일을 붙잡기보다 과감하게 하루 이틀 정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 하루 이틀이 장기적인 컨디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시점에는 사실 과거의 수치와 결과들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것

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쓰기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유학 지원이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과 서로의 상황을 잘 공유해서 힘든 유학 지원 기간에 의지하면서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배운 것을 바탕

으로 박사유학을 나가서도 서강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주신 허정 교수님,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신 최재림 교수님, 강만호 박사님, 유학 지원 과정 중 많은 조언 주신 허준영 교수님, 그리고 유학 지원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함께 돌파한 양동윤 학생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강칼럼 : 취업 후기



〈이지운 석사 졸업생〉

안녕하세요. 202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직무로 합격한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졸업생 이지운입니다. 먼저 경제학부 뉴스레터에 제 합격 수기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석사 생활 동안 아낌없는

지도해 주신 김윤정 교수님과 논문 심사를 해주신 허준영 교수님, 이한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국제 거시 분야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대학원 입학 때부터 연구기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 전공과 관련된 논문 작성 및 다양한 연구 방법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기관 취업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찾아 본인을 연구기관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연구기관에서 주로 영위하는 연구와 자신의 전공이 일치하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대학원 입학 전부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찾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전공 서적과 논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교수님들과 면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 때부터 확고한 전공 선호를 가지고 해당 전공 분야의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하는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연구기관에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연구원의 발간물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나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를 활용하여, 틈틈이 가고자 하는 연구기관과 원하는 부서의 보고서를 읽고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방법론을 익히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방법론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전공 적합성'이라면,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자신이 공부한 전공과 해당 부서가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녹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조식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정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도 자료를 자주 접하면서 개조식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석사 생활을 하면서 접한 데이터들의 출처와 특징을 간략하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접하는 업무이기에, 꼭 숙지해 두시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 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들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기관의 채용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목표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목표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실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동정

◎ 경제학부 교수 1년간(2022.1.1. ~ 현재) 주요 연구 업적 (국제학술지)

- 우수국제학술지 등재논문

**Taehyun Ahn** (2022).

“Workweek reduction and women's job turnover: Evidence from labor legislation in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60.

**In Choi** (2023).

“Does Climate Change Affect Economic Data?”, *Forthcoming at Empirical Economics (A special issue honoring Prof. Peter Schmidt)*.

**In Choi**, Rui Lin and Yongcheol Shin (2023).

“Canonical Correlation-based Model Selection for the Multilevel Factors”, *Journal of Econometrics*, 233.

Yeonsu Kim, Jisoo Kang and **Hyunbae Chun** (2022).

“Is Online Shopping Packaging Waste a Treat to the Environment”, *Economics Letters*, 214.

Janghee Cho, **Hyunbae Chun**, and **Yoonsoo Lee** (2023).

“Productivity Dynamics in the Retail Trade Sector: The Roles of Large Modern Retailers and Small Entr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60.

Donghan Shin and **Hyunbae Chun** (2023).

“The Entry of Online Retailers and Productivity Dynamics in the Retail Trade Sector”, *Economics Letters* 222.

Yeonjin Shin and **Jung Hur** (2022).

“Effects of Financial Soundness on Export Activities: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of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51.

Jihwan Do, **Jung Hur**, Sung-Ha Hwang and Larry D. Qiu (2023).

“Tariff Diversity and FTA Network”, *Review of World*

*Economics* 159.

Yeowoon Park, **Hailey Hayeon Joo** and Junghoon Moon (2022). “Modeling the Demand across Three Major Protein Sources: Focusing on Seafood Protein”, *Aquaculture Economics & Management* 27.

**In Kyung Kim** (2023).

“Country image and consumer choice: The case of the bee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thcoming at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aeho Kim** and Scott C. Linn (2022).

“Price discovery under model uncertainty”. *Energy Economics* 107.

**Jinwon Kim**.(2022).

"Does roadwork improve road speed? Evidence from urban freeways in Californi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93.

Kim, Seul-Ki, and **Young-Chul Kim**. (2022).

“Single-sex vs. coed education: can schooling type affect over- and underweight health risks?”, *Applied Economics Letters*.

**Young-Chul Kim**

“Segregation, Education Cost and the Group Inequality”, *Economics (Forthcoming)*.

**Yun Jung Kim** and Jing Zhang (202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Private Versus Public Flows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64.

**Yun Jung Kim** and Mei Quan (2023).

“Financing the R&D investment of Chinese firms: state-owned versus private firms”, *Applied Economics*.

Changkuk Im and **Jinkwon Lee** (2022).

“On the fragility of third-party punishment: The context effect of a dominated risky investment option”,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8.

**Sungwon Lee** (2023).

“Efficient estimation of a triangular system of equations for quantile regression”, *Economics Letters* 226.

Jaehyuk Choi, Lei Lu, Heungju Park and **Sungbin Sohn** (2022).

“The financial value of the within-government network: Evidence from Chinese municipal corporate bonds”, *Finance Research Letters* 47.

Joseph Han, Jinwook Hur, Jongkwan Lee and **Hyunjoo Yang** (2022).

“To move or not to move? The impact of immigration influx on natives' neighborhood choices in Seoul, Kor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2.

Danu Kim, Jeongkyung Won, Eunji Lee, Kyung Ryul Park, Jihee Kim, Sangyoon Park, **Hyunjoo Yang** and Meeyoung Cha (2022).

“Disaster assessment using computer vision and satellite imagery: Applications in detecting water-related building damages”,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Jean Hong, Sunkyoung Park and **Hyunjoo Yang** (2022).

“In strongman we trust: The political legacy of the New Village Movement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Yutaro Izumi, Sangyoon Park and **Hyunjoo Yang** (2023).

“The effects of South Korean Protestantism on human capital and female empowerment, 1930–2010”,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 ● 보직교수 인사



〈전성훈 교학부총장〉



〈김영철 대학원 부원장〉



〈주하연 경제대학원 부원장〉



〈허준영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

전성훈 교수가 2023년 2월을 시작으로 교학부총장에 부임하였다. 전성훈 교수는 대학본부, 대학,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영철 교수가 대학원 부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김영철 교수는 본교 대학원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3월을 시작으로 주하연 교수가 경제대학원 부원장으로, 허준영 교수는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연구년 소식

송의영 교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의 연구 학기를 마치고 2023년 1학기에 복귀하였다. 정국모 교수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연구 학기를 마치고 2023년 1학기에 복귀하였다. Doruk Iris 교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연구 학기를 갖고 있으며, 2023년 2학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도영, 양현주, 전현배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간, 박노선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연구 학기를 가질 예정이다.

◎ 퇴임 소식



〈사공용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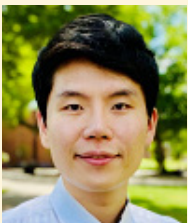


〈최인 교수〉

사공용 교수가 2023년 1학기 강의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사공용 교수는 1991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8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사공용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농업·자원 경제학으로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와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최인 교수가 2023년 1학기 강의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최인 교수는 1990년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과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이고, 계량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s를 비롯하여 Econometric Theory와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등의 우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 신입교수 임용



〈곽준희 교수〉



〈김인경 교수〉



〈김재호 교수〉

경제학과는 2023년 1학기 곽준희 교수, 김인경 교수, 김재호 교수를 신입교수로 임용하였다. 곽준희 교수는 2021년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쳐 2023년 1학기 본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곽준희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 거시경제학, 거시 금융경제학이다.

김인경 교수는 2014년 Indiana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University of Nazarbayev, 경북대학교를 거쳐 2023년 1학기 본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인경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실증 산업 조직론과 쿼터 마케팅이다.

김재호 교수는 2014년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University of Oklahoma, 한국개발연구원, 한양대학교를 거쳐 2023년 1학기 본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재호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시계열 자료 분석, 베이지안 계량경제학, 기계학습, 실증 거시경제학이다.

◎ 박정수 교수,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선임



〈박정수 교수〉

박정수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52년 출발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조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의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 손성빈 교수, 한국금융공학회의 상임이사 선임



〈손성빈 교수〉

손성빈 교수가 한국금융공학회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한국금융공학회는 2001년 금융공학적 측면에서의 증권·파생금융상품과 시장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융, 국제 재무 및 기업 재무 측면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 안태현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감사 선임



〈안태현 교수〉

안태현 교수가 한국노동경제학회 감사로 선임되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1976년 노동경제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발표로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 연구 및 정책제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전현배 교수,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패널 위원장 취임



〈전현배 교수〉

전현배 교수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패널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은 1994년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기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

은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경제의 분석'에 출간된다.

◎ 주하연 교수, 한국여성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응용경제학회 사무국장 취임



〈주하연 교수〉

주하연 교수가 한국여성경제학회 사무국장과 한국응용경제학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여성경제학회는 경제이론과 정책, 그리고 각종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경제학 이론, 실증 연구

를 성별 경제학(gender economics)적 시각으로 조명하여 학문의 객관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학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 경제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응용경제학회는 경제학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논제들을 현실과 이론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경제학의 발전과 학문과 현실의 접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 허정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선출



〈허정 교수〉

허정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선출되었다. 1952년 출발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조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의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2년 1학기부터 코로나 19의 실내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인해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Fall 2022 and Winter 2023]

이성관 (9월 22일)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Price of Losing Trust: An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Misconduct by YouTube Creators”

한바다 (10월 20일)

한국은행

“International Reserve Accumulation: Balancing Private Inflows with Public Outflows”

Almas Heshimati (10월 26일)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Green Innovations and Patent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이동규 (11월 9일)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Income Inequality and Job Creation”

홍승현 (11월 18일)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Voting with Your Mortgage: The Value of Democratic Governance”

김하영 (11월 25일)

조세재정연구원

“Spatially Heterogeneous Effects of Publicity: Evidence from the Restaurant Industry in New York City”

손혜림 (12월 01일)

서울시립대학교

“Envy is the Ulcer of the Soul: The Effect of Housing Price Inequality on Mental Health”

문석민 (12월 05일)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Firm Growth and Employee Earnings After Acquisitions: Linking Corporate and Worker Outcomes”

박동현 (12월 15일)

Asian Development Bank

“Entrepreneurship in the Digital Age”

양충열 (12월 19일)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Selection in Information Acquisition and Monetary Non-Neutrality”

◎ Jiam International Conference: Development Economics Week

- 시간 : 2022년 9월 27~29일

- 장소 : GN301

- 발표자 : David N.Weil(Brown University), Seul-Ki Kim(Sogang University), Ignacio Banares-Sanchez(London School of Economics), Izzat Hassan Bin Halim(Sogang University), Dong-Yun Yang(Sogang University), Jeong-Gil Song(Sogang University), JeongKyung Won(Sogang University), Albert Young-Il Kim(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Junichi Yamasaki(Kobe University), Yeonha Jeong(Sungkyunkwan University).

### ● 남덕우기념사업회 및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정책세

#### 미나

- 시간 : 2023년 2월 14일 14:00~16:00
- 장소 : GN815
- 주제 : 한미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유효성 비교분석
- 발표자 : 광노선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토론자 : 허준영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51집 3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51집 3호를 2022년도 10월에, 제52집 1호를 2023년 2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 『시장경제연구』 제51집 3호

1. “라쏘 방법을 이용한 수도권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 예측 변인 선택”  
- 임채실(이화여자대학교), 이진(이화여자대학교)
2. “구조벡터모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  
- 김덕파(고려대학교), 어윤중(고려대학교)
3.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Climate Value at Risk”  
- 황재학(금융감독원)
4.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결정요인”  
- 송준현(동경국제대학)
5. “공적연금의 소비평탄화 기능에 대한 연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 김학효(서강대학교), 김홍균(서강대학교)

#### 『시장경제연구』 제52집 1호

1. “한국의 세대 간 교육 이동성”  
- 김종욱(한국노동연구원, 서강대학교), 이성원(서강대학교)
2. “연구개발특구 입주와 연구소기업의 효과 분석”  
- 김형진(서울시립대학교), 유창호(전남대학교), 전봉걸(서울시립대학교)
3. “군 임금 상승이 제대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 김상용(국회예산정책처)
4. “서울 인구의 경기도·인천 이탈에 대한 세대별 결정요인 분석”  
-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 경제학부 단신

### 2023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 다. 선발 일정 : 6월 선발 및 7월 발표 예정

### 2023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이론경제학 : 김대희(21), 신현욱(20), 주현준(20)
- 나. 재무경제학 : 김도원(20), 박수연(21), 손주환(17), 정세호(19)

### 2022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 -
- 나. 재무경제학 : 김경현(17), 김동주(15), 민부경(17), 신희민(18)

###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인원 : 33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다. 지급방식: 증서와 상품(상품권)을 경제대학 행정실에서 배부

### 경제학부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금학기 휴학생 제외)
- 나. 선발 인원 : 10 명
- 다. 장학금 : 학업 장려금 1,000만 원 (인당 100만 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 2023년 경제대학 동문 선배와의 만남

- 가. 일자 : 5월 21일, 5월 27일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201호
- 다. 행사 내용
  - 경제대학 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의 취업 및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동문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 김도형 동문(현대자동차 재무회계), 재학생 29명 참석
  - 신재영 동문(SK가스 BSG 전략기획/재무), 재학생 19명 참석
  - 김민호 동문(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학생 15명 참석

## 경제대학원 소식

### 제60회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일시 : 2023.02.21(화) 오후 4시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 다. 학위수여자: 총 40명

전공	인원
공공경제	2
공공회계경제	1
국제경제	3
금융경제	9
부동산경제	1
인공지능경제	24
합계	40

### 2023학년도 전기(65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169명
- 나. 합격 131명
- 다. 최종 등록 : 91명(신입생 88명, 편입생 3명)

### 65기 신입생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 2023.2.18. (토) 16:00~21:00
- 나. 장소 :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 다. 참석인원 : 총 107명(신입생 87명, 재학생, 교수, 직원 등)

## 2023학년도 후기 학생모집

###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3~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3.05.02(월) ~ 2023.05.10(수)	2023.06.01(목) ~ 2023.06.08(목)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사 (www.jinhak.com)
서류제출	2023.05.11(목) 17:00 까지	2023.06.09(금)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3.05.19(금) 18:30 부터	2023.06.16(금) 18:30 부터	면접 전형일 1일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3.05.26(금) 15:00 예정	2023.06.23(금) 15:00 예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econ.sogang.ac.kr">http://econ.sogang.ac.kr</a>
등록금 납부	2023.07월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3.08.19.(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 2023년 경제대학원 OLP 제25기 개강



지난 3월 23일 OLP 25기 입학식이 본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강하는 OLP 25기 과정은 매주 목요일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ESG 경영 및 투자, 메타버스,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흐름 등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 강의를 실

시하게 된다. OLP 25기의 주요 일정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의 부부특강과 한 차례의 합숙 세미나를 실시하고 6월 29일 OLP 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춘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정규 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LP 과정 소개

OLP 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 동문동정

## - 강인철 동문(경제 78), 법무법인 광장 영입

강인철 동문(경제 78)이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되었다. 강인철 동문은 1992년 사법시험 합격 후(사법연수원 24기) 199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하였다. 이후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광주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20~2022년간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인철 동문이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되었다.

## - 이성재 동문(경제 79), 현대해상 대표이사 승진

이성재 동문(경제 79)이 현대해상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이성재 동문은 1986년 현대해상에 입사하여 최고홍보책임자(CCO: Chief Communication Officer), 경영기획본부, 자회사 현대 C&R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 김종선 동문(경제 81),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직 연임

김종선 동문(경제 81)이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직을 연임한다. 글로벌금융판매의 첫 단독대표이사인 김종선 동문은 2025년 3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된다. 김종선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현대해상 개인보험부문장, 인사총무지원부문장, 준법감시인 등을 거쳐 2020년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 황수남 동문(경제 83), '2022 여신금융 대상' 수상

황수남 동문(경제 83)이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금융대상'에서 여신금융 대상을 받았다. 황수남 동문은 1989년 현대증권에 입사, 현대캐피탈 마케팅팀장, 2008년 이후 우리파이낸셜 마케팅센터장(이사), 자동차 금융본부장(상무)을 지냈다. 이후 KB캐피탈 자동차금융본부장, KB캐피탈 영업채널본부장, KB캐피탈 전무, 2018 KB캐피탈 자동차금융본부장을 역임하고, 2019년 이후 KB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황수남 동문은 KB캐피탈 대표이로서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 융합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든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 - 권율 동문(경제 84), 국민훈장모란장 수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인 권율 동문(경제 84)은 지난해 11월 25일 '2022 개발 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모란장을 수훈했다. 권율 동문이 지난 30년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본교 경제학 박사인 권율 동문은 199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을 시작으로, 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 팀장, 개발협력팀 ODA 담당 연구위원, 아시아태평양 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대통령 자문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 박병규 동문(경제 85), 농협은행 부행장 선임

박병규 동문(경제 85)이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되었다. 박병규 동문은 199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금융기획실 과장과 금융기획부 차장, 구미시청 출장소장, 2012년부터 농협은행으로 옮겨 금융기획부 재무회계팀장, 김천시 부지부장, 동구미지점장을 역임했다. 이후 종합기획부 재무관리단장, 카드기획부장, 종합기획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 이성희 동문(경제 85), KB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 선임

이성희 동문(경제 85)이 KB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상무)으로 선임되었다. 이성희 동문은 1989년 산업은행에 입행, 달러·원 데스크에서 외환딜러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JP모건체이스은행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서울지점 FICC(채권·외환·상품) 트레이딩 부서장, 지점장 등을 지냈으며,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역임한 바 있다.

## - 정연우 동문(경제 88), LF 부사장 승진

정연우 동문(경제 88)이 LF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연우 동문은 LG상사 출신으로 LG상사 미국 법인 등의 요직을 거쳤으며, 2009년 LG패션(LF의 전신)에 입사해 전략기획실장, 신사캐주얼 부문장, 전략영업부문장을 거쳐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하였다.

## - 이광일 동문(경제 90), 농협장흥군지부장 취임

이광일 동문(경제 90)이 농협장흥군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광일 동문은 목포마리아회고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였다. 이후 창조농업지원센터 창조농업경영지원팀장, 농협은행 여삼금융센터 팀장, 회원종합지원부 회원경영관리팀장, 해남군지부 부지부장, 동명동지점장

등을 역임하였다.

## - 김상훈 동문(경제 99), 메리츠금융지주 IR 담당 상무 선임

김상훈 동문(경제 99)이 메리츠금융지주 IR(Investor Relations) 담당 상무로 선임되었다. 김상훈 동문은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 2012년 신한투자증권의 투자전략부 크레딧팀, 2020년 멀티에셋전략부 부서장, 투자전략부 부서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에서 매년 크레딧과 신용분석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 - 강필규 동문(경제대학원 5기),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승진

강필규 동문(경제대학원 5기)이 농협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강필규 동문은 1993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농협은행 인사부 인사기획팀장, 농협은행 종로금융센터장, 농협중앙회 홍보실 언론국장, 농협중앙회 대전영업본부장, 농협손해보험 위험관리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 - 임동순 동문(경제대학원 14기), NH-아문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임동순 동문(경제대학원 14기)이 NH-아문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임동순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임동순 동문은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인재개발부 팀장, 청와대지점장, 인사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년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으로서 신탁부문과 경영기획, 재무, 마케팅 부문을 담당해왔다.

## - 이종배 동문(경제대학원 20기), 기술보증기금 전략기획부문장 직 선임

이종배 동문(경제대학원 20기)이 기술보증기금 전략기획부문장 직으로 선임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에 따라 상임이사 4인이 각각 전략기획, 경영관리, 기술금융, 혁신성장 부문장을 맡아 책임경영에 나서게 되었다. 이종배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0년 기술보증기금에 입사, 중앙기술평가원 지점장, 송파지점장, 이사장 비서실장, 경기지역본부장을 거쳐 2019년 7월 상임이사, 2022년 1월 전무이사로 역임한 바 있다.

## - 조태현 동문(경제대학원 33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신임 상임이사 선임

조태현 동문(경제대학원 33기)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선임되었다. 조태현 동문은 앞으로 3년간 생명보험

재단의 사회공헌 복지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조태현 동문은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생명에 입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부장을 거쳐 삼성생명 전략지원팀장, 기획팀장(상무), AFC사업부 영업총괄 등을 역임하였다. 조태현 동문은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2021 서강 경제대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 구자관 동문(경제대학원 37기), 중견기업인의 날 은탑산업훈장  
구자관 동문(경제대학원 37기)이 지난 11월 7일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구자관 동문은 종합 아웃소싱 기업 삼구아이앤씨 창업자이자 책임대표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자관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로부터 '2018 서강경제대상'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사)도산아카데미 제5대 이사장으로 역임 중이다.

###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대학,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2.09.01.~2023.2.28)

**학부 동문** 김영훈, 김영민, 김환균, 문용호, 유경운, 정진화  
**교직원** 김경환  
**서강의 벗** 경제학과동창회, 위더스 제약 주식회사, 피엠케이(G-EnH 16기)  
**대학원** 희성앤에이치 주식회사

###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